

2019 새 설계

이 환 주 남원시장

#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 명성 다시 한번 드높일 것”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시장 목표를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으로 잡았다”며 “편안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평이근민(平易近民) 자세로 시민 섬김,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2019년 시장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기업유치 기반마련 및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과 문화관광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분야 투자,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남원 건설로 정했다.

이 시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유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약속했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남원의 현안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는데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업유치 기반 마련과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문화관광 산업화로 대변되는 남원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올해가 남원 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남원시대로 힘차게 발돋움해 거침없이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좋은 기업을 많이 끌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일반산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 총력

화장품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유치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

업단지 조성, 남원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화장품 산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내륙지역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기 개교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내권 관광과 산악관광 활성화라는 ‘관광발전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기에 접어들었다”며 “남원읍성 복원, 가야사 복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문화관광산업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확보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증대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시는 급속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생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며 “최첨단 ICT를 활용한 가축방역과 시설재배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팜을 안착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해 농로포장과 농배수로 확장, 경지정리, 저수지 보강사업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고령농업인 농업작업지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와 도우미 제도 운영 등 농업인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기반 확충, 예비귀농인 체험실습장 운영,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도 올해 문을 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르신들이 역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하고 관심과 지원을 넘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목표다.

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5일장 복지상담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힘쓰기로 했다”며 “여성친화도시에 다시 선정돼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평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들의 성원과 협조로

##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기업유치 기반 마련 및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 ▲문화관광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분야 투자
-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남원 건설

지난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 월락정수장 개량,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외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우리시가 예산규모 7000억원 시대를 맞을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할주로 삼아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으로 꿈과 희망이 넘실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올해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남원발전을 향한 행복비행에 가속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공>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예타 면제 촉구

전북지역 상공인 성명 채택...“정권따라 사업계획 변경 실망”

전북서남권(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하라”는 지역 상공인들의 성명을 채택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꿈꾸어 왔으나 새만금사업은 개발

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전북도민은 물론 서남권 지역민들은 새만금은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준 애증이 교차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

설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로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공인들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기반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 목표시점인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하게 되고, 2023 세계챔피언의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연은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줄 것이며 전북의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제3의 금융 중심지 지정, 친환경 자동차 산업,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을 가져와 낙후 전북의 한을 풀어 보려는 전북도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전북은 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위기에 빠졌다”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을 항공과 항만,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농산물 출하 수수료 1.25%로 인하

농가 유통비용 줄어든들

고창군 농민들이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작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창군은 최근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으로 계통출하 하는 통합마케팅 수수료를 2.25%에서 1.25%로 조정 했다.

이번 농산물 출하수수료 조정은 집계됐

던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는 공동출하 조직 확대와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지역 농산물의 제값을 받아 주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앞서 농협간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유통장구 일원화에 합의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 군산시, 소형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군산시에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차

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5t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출항 단말기 10t 미만)으로,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시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

